

펠로시 亞순방 첫 기착지 싱가포르 도착

〈미국 하원 의장〉

중 매체 “전용기 공군기지 착륙”

한국·일본·말레이시아 순방

대만 방문 여부는 끝까지 함구

대만 방문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고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인터넷판은 1일 항공기 경로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를 근거로 펠로시 의장 일행이 탑승한 C-40C 전용기가 현지 시간 1일 오전 4시20분(한국시간 오전 5시20분) 싱가포르의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같이 펠로시 하원의장이 동아시아 순방을 시작한 가운데 주일 미군에 소속되지 않은 미 군용기 10여대가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키나와 지역 신문 류큐신보는 지난달 30일 오키나와현 소재 미군 가데나기지에 미국 내 공군기

지 소속 KC-135 공중급유기 9대가 차례로 날아왔다고 1일 보도했다.

또 항공모함 함재 수송기 C2A 그레이하운드 2대와 미 해군 갑상상륙함 트리폴리 탑재기인 MH 60 헬기 1대도 목격됐다.

신문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에 따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전날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펠로시 의장이 1~2일 싱가포르를 방문한다고 싱가포르 외교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펠로시의 전용기는 7월 31일 오후 1시(이하 한국시간)에 하와이에서 이륙해 같은 날 오후 9시를 전후해 괌 기지에 도착한 뒤 현지에서 잠시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밤 11시30분께 괌 기지를 이륙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싱가포르는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첫 기착지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친구들에게 미국의 확고부동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오늘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 중간 급유를 위해 하와이를 들렀다면서 순방 대상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 4개국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다.

일각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3~4일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가 펠로시 전용기의 이동 경로를 세세하게 보도한데서 보듯 중국 측은 펠로시가 이번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 국방부 등 당국은 미국 대통령 유고시 승계 순위 2위인 펠로시가 대만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연일 ‘전투대비’라고 공개하며 반응했다.

인민해방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펠로시 의장 항공기의 대만 착륙을 저지하거나 비행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폭우 홍수로 토사 뒤덮인 이란 마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동부 피루즈쿠 마을이 폭우로 인한 홍수 때 밀려온 토사로 뒤덮여 있다. 이란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곳곳에 갑자기 내린 비로 홍수·산사태가 발생, 31일 현재 8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일 “한국 선박 독도 주변 해양조사 강력 항의”

“조사선 3척 항행에 주의 환기”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나선 한국 선박에 주의를 환기하고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4~27일, 26~27일, 27~28일 총 3척의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항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지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들 조사선은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22호,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2000호였다.

산케이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무선으로 조사선에 주의를 환기했으나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정당한 조사’라는 연막이 왔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어 “온누리호가 (독도) 영해에서 나

온 뒤 한일 중간선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이동해 조사용 기자재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탐구22호와 해양2000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경계 감시활동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일방적으로 설정해놓고 한국의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항의해 왔다.

앞서 지난 5~6월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에서 정례 해양 조사를 시행하자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1·6 의사당 폭동 책임론에 위상 흔들

공화당 지지층서도 회의론 확산

2024년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철옹성 같은 지위를 유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상이 조금씩 약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뒤 이듬해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둘러싼 하원 진상조사사태의 8차례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센 책임론이 불거진 것과 맞물려 입지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인다. 이는 특히 공화당 지지층 중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출마를 원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CNN방송의 지난 22~24일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55%는 트럼프 이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난달 말 에머슨 대학 조사 때는 61%가 같은 응답을 했다.

특히 상당한 격차를 보였던 후보주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6월 뉴햄프셔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 오차범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 7~10일 플로리다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선 디샌티스 주지사가 50.9%로 트럼프 전 대통령(38.6%)을 앞섰다.

민주당과 대표적 경합지역인 미시간주의 지난 13~15일 여론조사에선 45% 대 4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따라붙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공화당 의원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불붙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1·6 폭동 진상조사 특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쟁 속 일상 즐기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드네프르강변에서 시민들이 한여름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고온에 빙하 줄줄

알프스 탐방로 속속 통제

‘유럽의 지붕’ 알프스산맥의 인기 탐방로가 속속 통제되고 있다. 온난화에 따른 이상 고온현상 등으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어 탐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알프스 최고 인기 봉우리인 마터호른(4천478m), 몽블랑(4천809m)의 인기 탐방로 일부가 통제됐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발레다오스타주 가이드협회에 의조 말리에르 회장은 가디언에 “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는 경로가 끊어졌다”며 “코로나19 봉쇄에 이어 또 다른 타격이다. 거의 2년을 빈손으로 보냈는데 또 일손을 뉘야 한다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피에르 메이시 스위스 산악 가이드협회장도 “예년보다 너무 이른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보통은 8월이 돼서야 일산이 통제되는데, 6월 말부터 봉제가 시작되더니 7월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스위스 융프라우(4천158m) 가이드들도 지난 주부터 관광객에게 등정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가이드들이 융프라우 등정을 막아서는 것은 거의 100년 만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올해 5월부터 이어진 이상고온에 유럽의 빙하는 빠르게 녹고 있다.

지난겨울 부족한 적설량도 빙하가 녹는 속도를 부추기고 있다. 빙하는 겨울철 적설량이 많아야 여름을 버틸 수 있다.

빙하는 녹기 시작하면 매우 위험해진다. 빙하가 썩썩 열었을 때는 바위 같은 산악지형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지만, 빙하 녹은 물(융빙수)이 빙하 밑을 많이 흐를수록 빙하 자체의 흐름도 빨라지고 산사태·눈사태의 위험도 커진다. /연합뉴스

中은행들 부동산 위기로 최악 464조원 손실

중국 은행들이 부동산 시장 위기로 최악의 경우 2조4000억위안(약 464조500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 손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장기간 투기 단속이 주요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 위기로 이어졌으며 아파트 공사 중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의 모기지 상환 거부 사태가 발생했고, 금융 위기로 이어지면서 전 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은 이번 사태가 이미 수십만 명의 미분양 주택 구매자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90개 이상 도시에

서 모기지 상환 거부 불복다면서 이제는 56조달러(약 7경3000조원) 규모의 중국 은행 시스템에 어떤 타격을 줄지가 관심사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조4000억위안 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금의 6.4%가 위험에 처했다고 짚었다.

그동안 중국의 상장 은행들이 상환 거부 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택담보대출금이 21억위안(약 4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